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은 나도 걸렸다. 2년을 넘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피해 다녔던 병균에 감염이 된 것이다.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만 인후염이 시작되었다. 그 고통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었다. 마켓에 있는 인후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약은 전부 다 구입해 왔다. 소금으로 지저 보기도 하고 얼음으로 달래 보기도 했다. 그런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약(Paxlovid)을 처방 받아 먹었다. 5일간 먹는 약인데 목이 갈라지는 것 같은 아픔에 약으로 인한 쓴 냄새가 몸 안에서 나왔다. 그 약을 먹는 자체도 고통이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목의 고통 때문이고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니 잠을 못 이룬 탓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답이었다. 다행히 입맛은 사라지지 않아서 이것저것을 먹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다. 친구 목사의 죽음이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 되었을 때에 세상을 떠난 장 목사님이다. 이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그 보다 약한 변이에 걸렸고 약이 있으며 주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다행이요 감사한 제목이 아닌가? 그러니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 조금 더 참아보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몸이 아프니 일도 할 수 없었고 교회도 나올 수 없었다. 온라인 예배도 준비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며칠이 지나가니 조금씩 나아졌다. 그런데 코로나는 음성이지만 상처가 난 목은 쉽게 낫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다. 열심히 얼음을 옆에 두고 자세가 좋지 않았지만 누워서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뜻은 나를 다시 한 번 살려주셔서 나머지 날들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 달라는 뜻이었다.

한 번 그렇게 아프고 나니 정신이 난다. 죽음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넘나들면서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아팠던 일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답을 분명하게 받았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로마서 14장 8절)라고 늘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며 고백했던 고백을 나누었다. 그러니 나도 사나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회복이 되었다. 이제 90일은 면역이 확실하다고들 말한다. 가을에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맞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가 된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사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영화 한 편인 것이다.

“코로나에 걸리면 며칠 고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이 있었다. 쉽게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장담하지도 말고 인생을 약속하지도 말자. 그저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를 사용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안에 큰 기쁨과 힘을 주신다.